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관광경영학석사 학위논문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에 따른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3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관 광 경 영 학 과

김 영 주

관광경영학석사 학위논문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에 따른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도교수 설 훈 구

이 논문을 관광경영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관 광 경 영 학 과

김 영 주

김영주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17일



주	심	경 영 학 박사	최태영
위	원	관광경영학박사	설훈구
위	원	경 영 학 박사	김하균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엑스포의 개념	5
제 2 절 역대 개최 엑스포 주제 분석	9
제 3 절 부산광역시의 엑스포 주제 분석	15
제 3 장 연구 방법	32
제 1 절 분석 방법	32
제 2 절 자료 수집	35
제 4 장 AHP 분석 결과	38
제 1 절 분석 결과	38
제 5 장 결론	44
참고문헌	47
설문지	51

<표 목 차>

<표 2-1>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비교	7
<표 2-2> 역대 월드엑스포 주제	14
<표 2-3> 2030부산월드엑스포 세부 주제 및 키워드	16
<표 2-4> 2030 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 및 세부 주제별 키워드 분석	31
<표 3-1> 쌍대비교 척도	34
<표 3-2> 평가항목별 상세 설명	37
<표 4-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39
<표 4-2> 상위항목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40
<표 4-3> 대주제 ‘환경’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41
<표 4-4> 대주제 ‘기술’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42
<표 4-5> 대주제 ‘인류’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42

<그 립 목 차>

<그림 2-1> ESG경영 모형도	19
<그림 2-2> 부산지역 대학생이 인식한 부산월드엑스포에 어울리는 주제	23
<그림 2-3>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공모 내용 키워드 분석	23
<그림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25
<그림 2-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7
<그림 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GRDP·취업자 비중	29
<그림 3-1> 계층구조 모형	33
<그림 3-2> AHP분석 모형도	36

**An Exploratory Study of Detailed Themes in Accordance with
Themes of 2030 Busan World Expo Using AHP**

Kim Young Joo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election of the theme of the Expo acts as an important factor among the requirements for hosting. The theme of the Expo should include concepts that embody the core values of the Expo, "popular education," "creation of innovation," and "promotion of global cooperation," and should be able to draw sympathy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themes of the Expos held in history, and second, analyze the major themes selec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to attract the 2030 Busan World Expo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tailed theme. Finally, through an AHP analysis of Expo and MICE industry experts,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jor topics and detailed topics to focus on when holding the Expo and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decision-making of major stakeholder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HP analysis and analyzed based on a total of 32 vali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 took the highest priority in the top category. Second, 'Overcoming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was high in the detailed topic-specific priorities of the major subject 'Environment'. Third, 'Economic growth using new technologies' was high in the detailed subject-specific priority of the major subject 'Technology'. Fourth, 'Resolving inequality between race and gender' was the highest in the detailed topic-specific priority of the major system 'Human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topics and detailed topics to focus on when holding the 2030 Busan World Expo, which will allow you to consider the strengths of the attraction activities and use them to prepare for the Expo, such as creating an exhibition hall.

Key Words : Expo, 2030 Busan World Expo, Theme, Priority, Bureau International Expositions(BIE), Environment, Technology, Human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엑스포는 예술, 과학, 산업 등의 분야를 조직적으로 전시하여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주로 산업진흥, 경기 부흥 정책에 이용되는 대규모 행사이다. 엑스포는 국가가 주최하고 다수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서(장인우, 2021), 주로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국가별 문화나 미래상을 전시하고 세계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인류문명의 필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토론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3대 메가 이벤트 중에서도 엑스포는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는 월드컵, 올림픽에 비해 한곳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고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개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이미지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사회 위상제고 등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교류와 교역의 촉진에 기여한다(길미혜, 문유진, 2010). 2015년에 엑스포를 개최한 밀라노는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신생기업의 탄생,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계약, 관광 산업 활성화, 부동산 경기회복 등 약 30억 유로의 수익을 이루어내며 경제 회복의 성과를 거두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문화적 교류 등 다방면의 기대효과로 인해 엑스포 개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요건 중에서

‘주제(theme)’가 평가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김이태, 오성근, 2019). 가장 최근에 개최된 두바이 월드엑스포(2021)를 그 사례로 들어보면, 두바이가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요인 중에서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징과 미래 전략을 압축하여 표현한 주제와 소주제 선정이 그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두바이 월드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혁신과 진보는 사람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식으로 모인 결과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제를 스토리텔링하여 두바이의 미래전략과 밀접하게 연결한 소주제를 개발함으로써 경쟁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오성근, 2020).

이처럼 주제 및 소주제 선정은 엑스포 유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개최 명분을 대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엑스포의 핵심 가치인 ‘대중 교육’, ‘혁신 창출’, ‘세계적 협력 촉진’ 등다. 또한 소주제는 개최지와 적합성, 차별성, 매력성 등을 구체화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이며, 인류가 맞이할 미래 변화 및 도전과제와 직결되는 요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엑스포들의 주제 분석과 부산광역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선정한 대주제 아래 다루어질 세부 주제에 관하여 엑스포·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다뤄야 할 세부 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차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부산광역시는 지난 2022년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공식적으로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부산광역시는 BIE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부산만의 차별화 포인트, 개최역량, 주제 선정 등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2).

엑스포는 주제를 주축으로 하여 준비되고 개최된다. 따라서 엑스포의 주제는 개최지를 선정하는 평가 항목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엑스포의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국제신문 보도자료, 2021). 역대 엑스포 개최 사례와 주제개발에 관한 연구는 산업연구원 보고서(2015), 김봉석, 조휘림(2017), 김이태, 오성근(2019), 장인우(2021), 김이태(2021)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역대 엑스포의 주제와 방향성 설정과 관련해 어떤 주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선정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와 세부 주제 분석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다뤄야 할 세부 주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방향 설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제언이 그 목적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등록엑스포의 개최 사례와 주제를 분석한다. 둘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선정한 대주제와 각 세부 주제별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엑스포·MICE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대주제와 세부 주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의 범위가 제시되었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엑스포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역대 개최 엑스포의 주제와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 AHP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자료수집과 설문 대상, 설문 문항 등이 제시되어 연구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제4장은 표본의 인문학적 통계 분석을 포함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대주제와 세부 주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성과와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엑스포의 개념

1. 엑스포의 정의

세계박람회를 의미하는 엑스포(EXPO)는 ‘Exposition International’의 줄임말로써 상품의 교환 또는 문화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에서 그 어원이 비롯되었다. 1967년 몬트리올 세계박람회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리스본 세계박람회부터는 BIE 공인 박람회를 의미하는 공식용어가 되었다. 즉 세계박람회 혹은 EXPO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의해 공인된 박람회만을 의미한다(장인우, 2021). 엑스포는 18세기 말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전파되었다. 프랑스에서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한 산업전시회가 각국에 전파되어, 1851년 영국이 최초로 “수정궁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식민지 국가와 자유 무역을 맺고 있었는데, 런던엑스포의 대성공으로 자유무역의 추진, 산업 발전, 국가 간의 경쟁의식 등이 작용하여 서구 국가 사이에서 박람회 개최의 경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장인우, 2021). 엑스포는 19세기 중반부터 신제품·신기술을 출시·보급하면서 세계 경제·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였다. 1851년 런던에서 개최한 만국산업박람회에서 증기기관, 기관차 등을 선보인 이후, 내연기관차, 증기기관차 등이 출시되었고, 기술이 발전하며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하철,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등으로 발전하였다.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된 세계박

람회에서 전화기가 출시된 후, 오늘날의 스마트폰, 컴퓨터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초기 엑스포는 당시 인류의 문명 발전과 세계 경제, 과학 기술의 진보와 성과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서는 미래 인류가 직면할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최은순, 정문수, 2009).

런던엑스포의 성공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엑스포가 빈번하게 개최되자 주최국가 참가국간의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박람회기구(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를 설립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엑스포를 원활하게 개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로 1928년 11월에 43개국이 모여 설립하였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7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엑스포의 개최 목적과 성격, 개최규모 및 횟수, 개최국과 참가국의 의무, 규칙, 운영방식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협약을 개정하게 되었다. BIE 협약 제1조에 따르면 엑스포는 ‘공중의 교육을 위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며, 전시는 문명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수단이나 인류가 이룩한 진보의 업적, 그리고 미래 발전상 등이다(황기형, 박광서, 2009). 또 동 협약 제2조에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전시회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BIE 협약은 공익적 목적을 갖는 박람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장인우, 2021). 협약 개정을 통해 지금의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s)와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sitions)를 구분하였다.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는 주제, 개최기간, 주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등록엑스포는 인류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인정엑스포는 제한되고 명확한 특정 주제와 논의점을 다룬다. 등록엑스포는 ‘0’과 ‘5’가 끝나는 연도에 개최되고 있으며 인정엑스포는 등록엑

스포가 개최되는 기간에 1회 동시 개최되는 소규모 엑스포로 3주에서 3개월간 개최된다.

〈표 2-1〉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비교

구 분	등록 엑스포 (Registered Expo)	인정 엑스포 (Recognized Expo)
주 제	광범위한 주제	명확한 특정 주제
기 간	6개월	3개월
주 기	5년	등록엑스포 사이
전시면적	제한 없음	25ha(75천 평) 미만
비용분담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 건설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설하고 참가국에게 무료 임대
사 례	일본 오사카(1970) 독일 하노버(2000) 일본 아야치현(2005) 중국 상하이(2010) 이탈리아 밀라노(2015) UAE 두바이(2020)	일본 아이치현(2005) 스페인 사라고사(2008) 한국 여수(2012) 카자흐스탄 이스타나(2017)

자료 :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홈페이지 자료(2022)

2. 한국의 엑스포 참여 현황

한국은 1893년 미국의 시카고가 개최한 엑스포에 국가 전시관을 설치하며 첫 참가를 하여 관복, 부채, 짚신 등의 전통 생활용품을 전시하였고 엑스포 개막 당일 특별 파견된 10명의 악사가 조선 아악 공연을 펼쳤다.

이어서 1900년에 개최된 파리 엑스포에 참가했으며, 1962년 시애틀 개최 엑스포에서는 당시 독립 국가 수립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재봉틀, 고무신, 철물 제품 등의 공산품과 왕골, 유기제품, 도자기류 등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였다(장인우, 2021). 최근 2020 두바이 엑스포에도 국가 전시관을 설치하며 총 19회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엑스포는 1993년에 개최한 대전 엑스포가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열린 최초의 BIE 공인박람회이다. ‘새로운 도약의 길(The Challenge of a New Road to Development)’을 주제로 자기부상열차, 태양열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성공을 보여주었다(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이후 2012년에 여수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를 주제로 또 한 번 전문엑스포를 개최하며 총 2번의 전문엑스포를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여수엑스포에서는 해양연안이 처한 환경 문제의 시마각성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중요성, 국제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한 ‘여수선언’으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었으며, ‘여수선언’의 실천적 조치이며 해양연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만든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의 자생력과 해양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대하는 등 세계를 향한 도시로 거듭났다(2012여수세계박람회공식보고서, 2013).

부산광역시는 아시아 4위, 세계 9위의 MICE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전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보유한 도시다. 2014년 11월 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20년 6월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국제적 물류·금융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 ICT 신기술을 융합연계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적인 환경을 갖추는 등 국제행사 타당성을 인정받아 2018년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유치기획단을 출범하였다. 이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힘쓰고 있다(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공식홈페이지). 엑스포 유치 확정 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4만㎡에 달하는 부산시 북항 일대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480만명의 관람객, 43조원의 생산유발, 18조원의 부가가치, 50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낼 것이다. 또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국내 최초 등록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김이태, 2021).

제 2 절 역대 개최 엑스포 주제 분석

1) 2000 하노버 엑스포

2000년 독일 통일 10주년 및 새 천년을 기념하며 개최된 하노버 엑스포에서는 2000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독일 최초의 월드엑스포로,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했으며 약 1,80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하노버 엑스포의 주제인 ‘인류-자연-기술(Humankind - Nature - Technology)’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정의된 ‘Agenda 21’에서 기초한 행동 계획의 목표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세계박람회기구 공식 홈페이지). 새 천년의 개막과 함께 친환경적 사회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한 것이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할 문화

와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하노버 엑스포 종합결과 보고서, 2000).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간, 환경, 기본적 욕구, 건강, 에너지, 영양, 이동성, 지식, 노동, 지구의 비전, 21세기 등 11개 소주제를 제시하였다(김이태, 2019). 또한 주제 및 소주제에 대한 공감을 얻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Weltweite Project(월드와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김이태, 오성근, 2019).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주제가 철학적이고 사회적이어서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진 탓도 있었지만, 엑스포 개최 자체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과 낮은 호응으로 인해 시민의 관심과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노버 엑스포의 주제와 주제의 구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요 관심사였던 환경문제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이슈와 연결된 주제 선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다(김이태, 오성근, 2019). 또한 엑스포 개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물 중 일부를 전시관에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전시만 관람하는 단순 관람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2) 2010 상하이 엑스포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2010 상하이 엑스포는 192개 회원국과 50개의 국제기구, 50개 도시관, 18개 기업관이 참가했으며, 약 7,3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경신한 대규모 엑스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는 ‘보다 나은 도시, 보다 나은 생활(Better City, Better Life)’의 대주제와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 혼합’, ‘도시의 경제성장’, ‘도시의 과학과 기술혁신’의 소주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주제는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과 회원국으로부터 ‘도시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는 주제가 상당히 일찍 정해진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부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기 7년 전부터 주제연구팀을 결성해 주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상하이시는 역대 박람회의 주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중국 발전에 적합한 키워드를 찾고 ‘도시’, ‘문명’, ‘문화’ 등의 주제 유형을 도출하였다(국제신문, 2021). 상하이 엑스포의 주제는 당시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던 도시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혁신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자는 의미를 내포하며 선정되었다. 이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있어 북학 재개발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은 개발과 주제 선정이라는 이점을 모두 잡은 상하이 엑스포 주제 선정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국제신문, 2021). 또한 당시 경쟁 도시였던 한국 여수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에 비하여 간결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제로 극찬을 받아 엑스포 유치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김이태, 2019).

3) 2015 밀라노 엑스포

201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2015 밀라노 엑스포는 2,100만 명의 방문객과 함께 300개 이상의 경제 사절단, 60여 명의 세계 정상이 방문하였다(이봉순, 2021).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는 인류의 식량 문제와 인구 증가, 낭비와 회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

구의 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식량 문제는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는 주제였다(임송수, 2015). UN 밀레니엄 선언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세계의 빈곤, 기아 퇴치, 영양 안보를 다루는 설득력 있는 주제이며 ‘식품안전과 품질에 관한 과학과 기술’, ‘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과 기술’, ‘농식품유통 혁신’, ‘식생활 교육’, ‘더 나은 삶의 유형을 위한 식품’, ‘식품과 문화’, ‘식품 관련 협력과 발전’이 세부 주제로 연결되었다. 과도한 식량 소비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탐색하였으며, 엑스포를 통해 영양, 식품에 대한 보편권 권리와 목표를 설정하는 ‘밀라노 헌장’을 발표하였다. 밀라노 엑스포 주제 선정이 주는 시사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의·식·주와 관련한 보편성 있는 주제로 참가자와 전시자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하였다는 점이다(김이태, 오성근, 2019). 이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와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등 국제적으로 담론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의제를 식생활과 같은 보편성 있는 의제와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4) 2020 두바이 엑스포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개최된 2020 두바이 엑스포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린 최초의 월드 엑스포로써 약 2,400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하였다.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미래 세대에 영감을 주고 조직간, 지역간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장인우, 2021). 주

제를 구체화할 세부 주제인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 건강 및 웰빙, 불평등,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와 협력적인 해결책을 탐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엑스포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염두하며 완공한 테라(Terra) 전시관은 ‘디스트릭트 2020(District 2020)’ 과학센터에 속하여 두바이 엑스포의 테마를 이어받아 기업간 협업을 장려하는 스마트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5)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2025년에 개최될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18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경쟁 도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제치고 2025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1970년에 개최된 아시아 최초 엑스포였던 오사카 엑스포 이후 55년 만에 개최되는 엑스포로 방문객 수는 약 35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사카시 남서쪽에 위치한 인공섬 유메시마에 조성하여 엑스포 최초로 인공섬 박람회장으로 기록된다.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의 디자인’을 테마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을 통한 고령화,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문제 및 인간의 삶에 중점을 두어 ‘우리의 삶을 빛내는 미래 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전략에 따라 백신, 환경, 수명, 건강 등의 세부 키워드를 도출하여 ‘구원(Saving Lives)’, ‘역량강화(Empowering Lives)’, ‘삶의 연결(Connecting Lives)’을 소주제로 선정하였다.

김봉석(2022)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유치에 있어 일본 시민의 적극

적인 참여 활동이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제 공동체의 협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엑스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 기업과의 협력 활동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2-2〉 역대 월드엑스포 주제

엑스포명	개최기간	개최지	엑스포 주제
2000 하노버 엑스포	2000.06.01. ~2000.10.31.	독일 하노버	인류-자연-기술(Humankind - Nature - Technology)
2010 상하이 엑스포	2010.05.01. ~2010.10.31.	중국 상하이	보다 나은 도시, 보다 나은 생활(Better City, Better Life)
2015 밀라노 엑스포	2015.05.01. ~2015.10.31	이탈리아 밀라노	지구의 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2020 두바이 엑스포	2021.10.01. ~2022.03.3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2025.04.13. ~2025.10.13	일본 오사카, 간사이	우리의 삶을 빛내는 미래 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

제 3 절 부산광역시의 엑스포 주제 분석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며 주제를 제시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는 기후 변화 위기, 디지털 기술 전환의 양면성, 국가간·계층간에 심화된 격차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류는 전 지구적 위기에 처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는 대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환’을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대전환’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공식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 양상에 맞춰 세부 주제를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9).

첫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환경,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둘째, 인류를 위한 기술(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

셋째, 돌봄과 나눔의 장(인류, 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표 2-3〉 2030부산월드엑스포 세부 주제 및 키워드

세부 주제	내용	주요 키워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	-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 녹색 산업 혁명 (Green Industrial Revolution) - 그린 파트너십 (Green Partnership)
인류를 위한 기술	첨단기술의 개발에 따른 여러 양면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 증진	- 혁신 기술 (Innovative Technology) - 휴먼 테크놀로지 (Human Technology) - 포괄적 기술 (Inclusive Technology)
돌봄과 나눔의 장	계층간, 국가간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문제를 해소	- 사회안전망 플랫폼 (Platform for Social Safety Net) - 격차 해소를 위한 플랫폼 (Platform for Gap Settlement) - 지식공유 플랫폼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1) 환경 :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세 가지 세부 주제 중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은 역대 엑스포에서도 꾸준히 대두되어온 문제인 환경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주제다. 2022년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제9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미래학회 회장 김 데이토 교수가 ‘기후변화와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녹화강의를 통해 그 심각성을 연설하고 ‘녹색기술세션(녹색 생태계 활성화의 무대 엑스포)’,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세션(사회 가치를 위한 엑스포)’에 국제기구, 관련 분야 학자, 전문가 등이 논의하며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박영숙, Jerome Glenn(2015) 저자의 유엔미래보고서 2045에 의하면 평균기온 1℃ 상승의 변화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에서는 얼음이 완전히 사라져 1만 1,000년 만에 얼음 없는 산이 되며 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없어 방글라데시가 집중 홍수로 상습 수몰 지역이 되고 정기적으로 태풍이 찾아온다고 한다.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일부 섬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평균기온 상승은 건조한 기후 역시 한층 악화시키는데, 따뜻한 온도에 곤충 번식이 극심해지며 야생동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숲 대부분이 소멸한다. 물 부족은 인더스 강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며 파키스탄이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한다. 빙하들은 녹고, 질병 패턴들은 변화하며, 산호초들이 중거가고 있다. 앞으로 60년 동안 세계 표토의 절반가량이 파괴되고 폐허가 될 수 있다. 어종의 30%는 이미 소멸했으며 201%의 포유류종들과 70%의 식물종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듯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물 부족, 기후 난민, 국경의 상실 등의 문제는 수십 년 간 계속될 것이다(박영숙, Jerome Glenn, 2015).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 변이, 환경파괴 등 인류가 맞이한 총체적 환경 변화의 위기(안남일, 2022)도 선정 이유에 있다. 2020년 2월,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건강과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위기다(Klenert et al., 2020).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 수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Le Quéré et al., 2020). 2020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일평균 탄소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17% 감소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탄소배출량이 약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Le Quéré et al., 2020). 그러나 우리나라

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폐쇄를 해제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차츰 정상화하기 시작하자 탄소배출량이 이전과 같이 증가했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팬데믹의 기후변화 영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고재경 외, 2020). UN은 팬데믹을 경제, 환경, 안보, 인권 측면의 위기로 보고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제시했다(UNISDR, 2017). 발전적 재건이란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을 재난 발생 전 단계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이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상태를 지향함을 의미한다(Mannakkara and Wilkinson, 2013). 김이태(2021)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환경을 고려한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김태철, 한진영(2022)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의 기후변화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ESG경영에 대한 논의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특히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를 직접 맞닥뜨린 해양 도시로서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조성 등 세계 각국과 미래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의 강점으로 그 필연성이 강조되기도 했다(박재현, 2022).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지속성, 윤리성,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핵심 가치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 역할 강화

〈그림 2-1〉 ESG경영 모형도

*그림 출처 : KINTEX 공식 홈페이지(2022)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효성FMS, 2021). ESG는 기업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불확실성 시대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지속적 경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효성FMS, 2021). 투자자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기업에 주목하고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ESG는 엑스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상훈(2022)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기술을 선보이는 엑스포에서 ESG 개념을 적용하여 참가국, 참가기업, 단체 간 액

스포에서 얻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런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살아남은 미래의 인류에게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은 지상 최대의 숙제가 될 것이다. 이준이(2022)는 2022년 9월 개최된 부산엑스포포럼에서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만이 아닌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이며, IPCC 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WGⅢ : Working Group Ⅲ)는 모든 부문에 걸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토지이용, 산업, 도시, 건물, 수송, 수요 및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엑스포 주제의 구현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부산시는 이를 통해 기후대응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준이, 2022).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그린 에너지(Green Energy), 녹색 산업 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등의 키워드를 제안하였다.

2) 기술 : 인류를 위한 기술

‘인류를 위한 기술’은 첨단기술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양면성의 문제를 다루는 주제로 제안되었다. 특히 팬데믹(Pandemic) 현상이 바뀌놓은 우리의 기술 중 하나인 메타버스는 부산시가 제시하는 차별화 포인트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데, 역대 엑스포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일컫는 말로, 단어의 어원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우주라고 번역된다.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상위 개념으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하여 가상공간을 즐기는 데에서 나아가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현실과 가상 사이에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로 주로 사용된다. 메타버스 기술은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자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AR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관 입장 시 주제에 맞춰 첨단 AR기법을 적용한 실감형 체험을 다루었다.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의 한국관에서는 ‘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이라는 주제로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기술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2020두바이엑스포 공식홈페이지, 2020).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모빌리티에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였다(부산일보, 2022). 입장 시 제공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외부 램프에서는 하이퍼튜브, 드론 택시 등 증강현실 콘텐츠로 한국의 첨단정보통신·융복합 기술을 즐길 수 있도록 미래 스마트시티를 구성하였고 영상관에서는 대형 화면을 통해 이동의 한계를 넘어 한국으로의 가상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였다(전기신문, 2021).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

여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방문객 230만 명을 포함해 총 330만 명이 한국관을 찾음으로써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상훈,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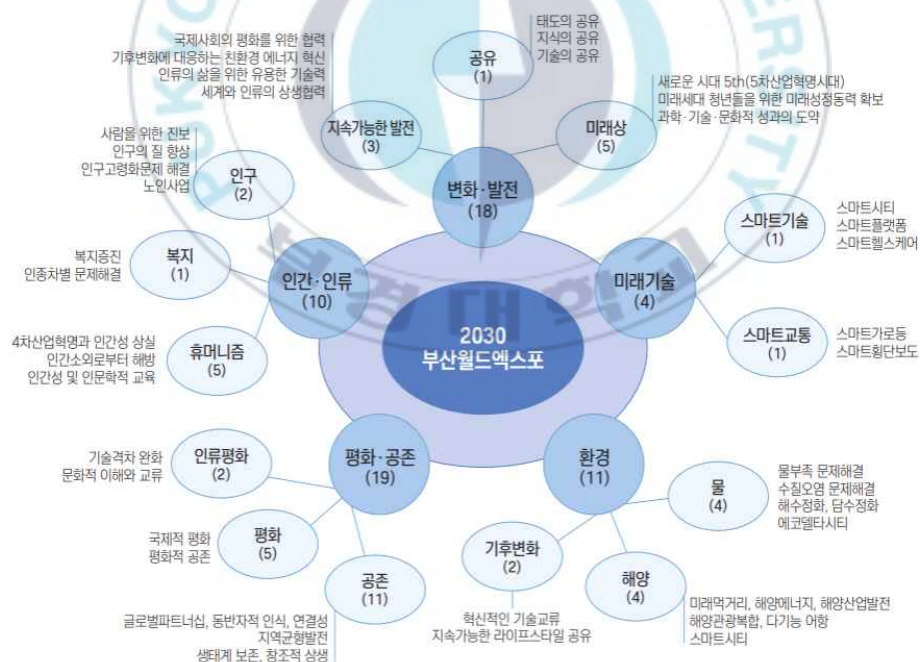
이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그 효과가 부각되는데, 이상훈(2022)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 한국관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선보였던 성공 사례를 살려 관람객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세계적으로 엑스포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허동근 등(2021)은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엑스포를 진행하면, 오프라인의 경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 포인트로서 엑스포 최초로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현할 것을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22).

김이태(2018)가 부산지역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시 부산에 어울리는 주제 조사 연구에서 ‘미래도시와 라이프스타일(4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미래기술의 고도화(12.7%)’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 ‘식수, 식량 확보에 관한 기술 발전(11.8%)’, ‘융·복합적 다문화 공생(5.7%)’, ‘기후변화, 자연재해(5.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 또한 부산시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2019년에 진행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에서는 ‘스마트기술’, ‘기술격차 완화’, ‘친환경 에너지’도 높은 빈도의 키워드로 제시되었다<그림 2-3>. 이에 따라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VR, AR, Block Chain, Big data, Drone 등)의 활용을 통해 엑스포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고, 녹색 에너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림 2-2〉 부산지역 대학생이 인식한 부산월드엑스포에 어울리는 주제

*그림 출처 : 부산발전포럼(2021)



〈그림 2-3〉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공모 내용 키워드분석

*그림 출처 : 부산발전포럼(2021)

유엔미래보고서 2045에 의하면 인공지능, AI, 로봇 등의 신기술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며 그 중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은 드론(Drone)이다. 10년 전 주로 군사 작전에 사용되었던 드론은 이제는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외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및 의학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로봇 기술 등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며 그 편리성과 기능의 정교함이 무궁무진히 발전하고 있다(박영숙, Jerome Glenn, 2015). 이러한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한 인식과 가치도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의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첨단기술로 인해 인류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신기술이 출시될 때마다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박영숙, Jerome Glenn(2015)은 무인자동차, 무인기 드론, 3D 프린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AI 로봇과 같은 기술들은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파괴적 기술들이며 이 같은 기술의 발달은 의료시스템, 정부시스템, 교육시스템과 같은 기존 사회의 시스템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했다. 기술의 발달은 개인 및 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80% 수준,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11대 분야 중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68.4%)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분야는 2018년까지 중국에 앞서 있었으나, 2020년 후로는 중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산학뉴스, 2021).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기술수준(%)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건설·교통(11)	79.0	84.0	75.4	80.0	89.3	89.1	96.5	97.8	100.0	100.0
재난안전(4)	75.9	80.4	70.0	75.5	90.5	87.8	92.5	92.6	100.0	100.0
우주·항공·해양(7)	65.1	68.4	80.6	81.6	83.1	83.5	93.2	93.3	100.0	100.0
국방(3)	72.5	75.0	80.0	81.7	76.3	77.0	88.3	88.3	100.0	100.0
기계·제조(13)	78.0	80.7	73.7	77.6	90.8	90.3	100.0	100.0	98.6	98.9
소재·나노(5)	78.3	80.8	76.2	79.9	98.0	97.6	91.7	91.9	100.0	100.0
농림수산·식품(9)	79.8	81.4	75.3	78.6	88.9	88.4	99.3	99.7	100.0	100.0
생명·보건의료(21)	75.2	77.9	73.2	78.0	83.8	81.6	91.0	92.2	100.0	100.0
에너지·자원(18)	76.8	80.2	76.8	81.6	90.6	91.0	96.7	98.2	100.0	100.0
환경·기상(12)	76.6	81.1	71.4	75.5	90.1	90.0	98.7	99.2	100.0	100.0
ICT·SW(17)	80.2	83.0	82.0	85.7	84.9	84.3	89.8	90.9	100.0	100.0
전체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그림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그림 출처 : 산학뉴스(2021)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기술로 인한 빈부격차도 발생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 협력 관계가 개발도상국은 물론 자국의 발전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전승훈 외, 2006).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서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안혜린, 이정재, 2011). 최근에는 전 세계 최초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국내에 조직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외교부 보도자료, 2022).

3) 인류 : 돌봄과 나눔의 장

세부 주제 ‘돌봄과 나눔의 장’은 인류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주제로써 계층간, 국가간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사회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상실한 인간성의 복원과 인문학적 교양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엑스포는 UN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와 연계한 주제를 많이 선정하고 있는데 노동, 임금 부문에서의 불평등과 인종차별, 기초교육의 접근성과 국가간, 계층간 존재하는 지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시되었다.

부산광역시와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주최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에서 평화·공존, 인간·인류는 주제 키워드로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조사 결과는 인류의 공존과 환경을 고려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기술의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이태, 2019).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및 파트너십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다(지속가능발전포털, 2022).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를 기본 취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 해결을 공동 목표로 하며, 17개의 목표는 ‘빈곤 퇴치’, ‘인권 보장’, ‘성평등’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선언문에는 각각의 세부 목표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제 이행을 통해 국제법상 국가들의 권리

와 의무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며 인류와 인권,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가간의 협력과 이해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이는 엑스포 주제와도 연계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이태, 오성근, 2019). 엑스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인간성 상실과 자연 파괴, 사회적 소외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갖게 되었다(최은순, 정문수, 2009).



〈그림 2-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림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의 2020 세계교육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전 세계 인구의 17%인 2억 5,800만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아동, 초등학생이다. 지난 10년 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읽기, 쓰기, 계산 등의 기본적인 문맹 퇴치는 높아졌지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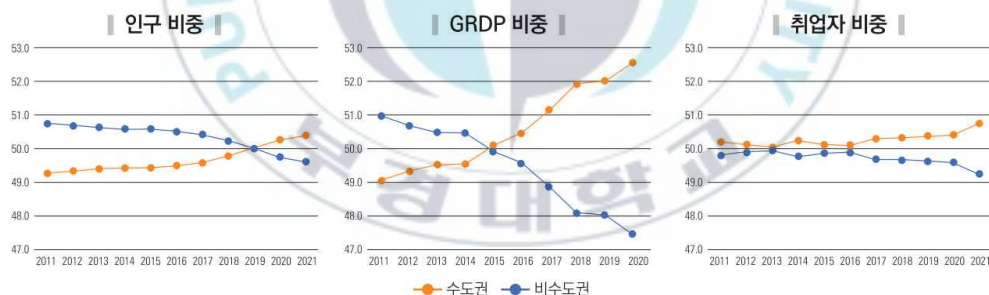
목표 달성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 토대이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는 세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문제로 여기며, 남녀평등이야말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서술했다. OECD는 성 불평등, 차별적 법률과 사회적 규범 등을 고려해 사회제도와 성별 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 SIGI)를 산출했다. 그 결과 SIGI 지수가 높은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가까웠지만 차별 정도가 높은 국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에 불과했다. SIGI 지수를 산출한 국가 중 121개국에 여전히 차별적 사회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중동, 일부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 할례의식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300만 명의 여성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미 1억 4,0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강제로 의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숙, Jerome Glenn, 2015).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까지 8,60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규(2021)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기술과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됨으로 인한 선택적 소통으로, 계층간 갈등과 소외가 심화되었다고 기술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간성 상실 등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이전에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며(박상규, 2021), 인문학적 교양 증대가 대두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며 대부분의 일자리와 인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물리자 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각종 규제정책을 세우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며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이호영,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경제, 일자리 등의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한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3-6>과 같이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GRDP·취업자 비중 등의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주도의 문제해결형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림 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GRDP·취업자 비중(2011-2021)

*그림 출처 : 통계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2022)

4) 키워드 도출

부산시가 선정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와 세부 주제의 분석에 따라 <표2-4>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환경’에서는 환경오염, 생태 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같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 방안’이 나타났으며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의 키워드에 따라 ‘그린에너지 활용방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팬데믹에 따른 환경문제’로 팬데믹, 멸종위기 동식물이 도출되었다. 민간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또한 ‘환경’에 포함되었다.

‘기술’에서는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AI, 로봇과 같은 신기술로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을 키워드로 도출하였으며 녹색에너지, 수소, 전기차에 맞춰 ‘친환경 기술 전략’을 나타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 해결방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도 ‘기술’ 주제에 구분되었다.

‘인류’에서는 지식의 양극화, 평등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공평한 양질의 교육’, 인종차별, 성평등, 빈곤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를 도출하였다. 과도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실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지역균형발전’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표 2-4〉 2030 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 및 세부 주제별 키워드 분석

구분	세부 주제	내용	키워드
환경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 방안	- 환경오염, 생태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 - 팬데믹, 멸종위기 동식물 - ESG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팬데믹(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민간, 공기관 별 ESG 경영	
기술	인류를 위한 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AI, 로봇 등 신기술 - 녹색에너지, 수소, 전기차 - 실직, 고용 - 국가간 기술 격차
		친환경 기술 전략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 해결방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인류	돌봄과 나눔의 장	공평한 양질의 교육	- 지식의 양극화, 평등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 인종차별, 성평등, 여성, 아동, 빈곤 - 인문학, 인간성 - 지역균형발전, 지역 격차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방법

1. AHP분석 기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법)는 1970년 미국의 전략 연구학 학자인 Saaty(1987) 교수가 고안한 계산 모델로서, 미 국무부의 군사 무기 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작업을 하는 도중, 의사결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AHP분석법은 여러 요소들을 계층화하고 연관된 요소를 비교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쉽게 계량화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되기도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송의근, 2007). 상대적 의사결정의 방법이므로 선호도 파악이나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중요도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하위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를 증가시켜주는 분석기법이다.

Var et al.(1985)는 행사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AHP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고려요건으로는 행사 개최지와 거리, 교통, 비용, 기후, 호텔 및 회의 시설의 사양, 관광문화자원 등을 선택기준으로 하였으며, 호텔 및 회의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영문, 오익근(1996)이 AHP분석기법을 관광경영학 분야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관광지 3곳을 AHP분석기법을 통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술했다.

심원섭, 류명훈(2001)은 복잡한 정책결정, 중장기 전략계획, 복잡한 관광개발정책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AHP분석기법을 이용했다. 관광개발정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된 고려요건은 추진절차의 적합성, 추진 효율성, 추진결과의 효과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이 중 추진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AHP분석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문제를 그 속성으로 세분화하여 상위 요소에의 영향력 또는 공헌도에 따라 요소들을 배열함으로써 계층을 구조화해야 한다(오정한, 2010). 최상위(계층 1)에는 최종목표인 연구주제 또는 목적을 배열하고, 중위 수준(계층 2)에는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들로 구성한다. 하위 수준(계층 3)은 상위수준에 대해 일종의 목표수단의 연쇄 속성을 띤다.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단계적으로 하위수준에 전달된다.



〈그림 3-1〉 계층구조 모형

AHP 분석의 중요한 특성은 상위계층의 속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대안 또는 각 평가항목을 평가할 때, 두 항목씩 짝을 지어 상대적 우위를 가리는 것에 있다(김향자, 1998). 또한,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를 하려면 신뢰할만한 평가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야 한다(권태일, 2008). 평가항목의 가중치의 경우 Saaty의 9점 척도를 이용,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들 간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표 3-1〉 쌍대비교 척도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	어떤기준에 대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7	매우 중요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중요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본 연구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대주제(환경, 기술, 인류) 아래 다루어질 세부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주제의 우선순위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자료 수집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MICE 관련 업계 종사자, 관련 기관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MICE 관련 업계에서 1년 이상, 행사 운영 및 지원 횟수 30회 이상자,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경력 10년 이상자 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 전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설명 후 메일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설문을 전달하여 회수하였다. 배포한 38부 설문지 중, 일관성 검증을 통해 일관성이 낮은 설문지 6부는 제외 후 최종 32부로 분석하였으며, 일관성 비율은 0.1로 기준하였다.

2. AHP 분석 모형도

본 연구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에 따른 세부주제별 우선순위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분석한 주제와 키워드를 토대로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상위항목은 부산시가 제시한 엑스포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구체화시키는 세부 주제인 환경, 기술, 인류로 구분하였다. ‘환경’의 하위항목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 그린에너지 활용 방안, 팬데믹(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민간·공기관 별 ESG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평

가하는 항목이다. ‘기술’의 하위항목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친환경 기술 전략, 첨단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 해결방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로 구성하여 인류에게 있어 기술 중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한다. 상위항목 ‘인류’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인 공평한 양질의 교육,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지역 균형발전 방안으로 구성하여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요구하는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해 어떤 항목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평가한다.



〈그림 3-2〉 AHP분석 모형도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표3-2>와 같이 응답자가 답변하기 전에 본 설문지의 진행 목적과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 설문에 해당하는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설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돕도록 하였다.

〈표 3-2〉 평가항목별 상세 설명

상위항목	하위항목	설 명
환경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 방안	• 환경오염, 생태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지구적 위기와 극복 방안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활용방안 등 그린에너지
	팬데믹(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등)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 멸종위기 동식물과의 공생 방안
	민간, 공공기관 별 ESG 경영	• 민간, 공공기관, 정부간 ESG 경영 전략과 현황
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AI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과 산업 고도화
	친환경 기술 전략	• 녹색 에너지, 수소, 전기차 등의 기술 활용 방안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 해결방안	•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실직의 해결방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완화와 상생 방안
인류	공평한 양질의 교육	• 국가·계층간 지식의 양극화 해소,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 인종차별, 성평등을 위한 해결방안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 산업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문학적 교양 증대 방안
	지역균형발전 방안	• 수도권 중심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 4 장 AHP 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의 표본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성별은 전체 32명 중 남성 14명(43.8%), 여성 18명(56.3%)으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30대 14명(43.8%), 20대 10명(31.3%), 40대 5명(15.68%), 50대 이상 3명(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26명(81.3%), 대학원 이상 5명(15.6%), 고등학교 졸업 이하 1명(3.1%)으로 나타났다. 근무 직종은 관련 업계 종사 26명(8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5명(15.6%), 기타 1명(3.1%)으로 나타났다<표 4-1>.

〈표 4-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14	43.8
	여	18	56.3
합 계		32	100
연 령	10대	0	0
	20대	10	31.3
	30대	14	43.8
	40대	5	15.6
	50대	3	9.4
합 계		32	100
학 력	고졸 이하	0	0
	고졸	1	3.1
	대학 졸업	26	81.3
	대학원 이상	5	15.6
합 계		32	100
근무 직종	관련 업계 종사	26	81.3
	공무원/공공기관	5	15.6
	교직원/연구기관	0	0
	기타	1	3.1
합 계		32	100

2. 상위항목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우선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상위항목인 ‘환경’, ‘기술’, ‘인류’ 3개 항목으로 계층화하였으며, 이 상위항목에 대한 AHP분석의 일관성 지수는 0.1 이하로 신뢰도를 보였다. <표 4-2>과 같이 상위항목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3과 같이 환경(0.422), 인류(0.331), 기술(0.247)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으로써 Schrenk & Jensen (2014)의 연구에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 분야가 엑스포의 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이 동일하다는 시사점을 나타냈다.

<표 4-2> 상위항목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상위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지수
환경	0.422	1순위	0.072
기술	0.247	3순위	
인류	0.331	2순위	

3. 하위항목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1) 대주제 ‘환경’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3개의 대주제별 세부 주제인 13개의 하위항목들을 각 대주제별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주제 ‘환경’의 하위항목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0.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린에너지 활용방안(0.254),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환경문제(0.204), 민간·공기관의 ESG 경영(0.145),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0.13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

<표 4-3> 대주제 ‘환경’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하위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지수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	0.262	1순위	0.088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0.257	2순위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환경문제	0.243	3순위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0.135	5순위	
민간·공기관의 ESG 경영	0.145	4순위	

2) 대주제 ‘기술’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다음은 대주제 ‘기술’의 4개 하위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표4-4>에서 볼 수 있듯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0.306), 친환경 기술 전략(0.255),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0.234),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실직(0.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주제 ‘기술’에서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산광역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제시한 차별화 포인트 중 ‘메타버스 활용를 활용한 열린 엑스포’, ‘최신 기술로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전략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대주제 ‘기술’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하위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지수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0.306	1순위	0.059
친환경 기술 전략	0.255	2순위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실직	0.205	4순위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0.234	3순위	

3) 대주제 ‘인류’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대주제 ‘인류’의 4개 하위항목을 분석한 결과,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0.31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평한 양질의 교육(0.255),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0.242), 지역 균형발전 방안(0.192) 순으로 우선순위가 조사되었다<표 4-5>. 특히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가 높게 나타남은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의 평등과 갈등해소를 통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김이태(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표 4-5〉 대주제 ‘인류’의 하위 항목 우선순위 분석결과

하위항목	가중치	우선순위	일관성지수
공평한 양질의 교육	0.255	2순위	0.094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0.311	1순위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0.242	3순위	
지역 균형발전 방안	0.192	4순위	

그 외,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서 다뤄야 할 또 다른 주제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전 세계가 처한 식량 위기와 빈곤’, ‘전쟁 종식과 인류 평화’, ‘건강 및 의료서비스’, ‘여성의 인권 신장’, ‘미래도시’, ‘인류의 새로운 중장기목표’, ‘해양과 도시’, ‘미래 우주’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열거된 답변은 현재 전 세계가 처한 문제와 우리나라에서 최근 다루어진 이슈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온 문제들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주제 ‘환경’, ‘기술’, ‘인류’에 일부 포함된 내용이지만 답변자들은 엑스포 유치 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들로 꼽았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이를 통한 주제의 방향성 설정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먼저 역대 엑스포 개최 사례를 통해 각 엑스포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주제가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후 엑스포 및 MICE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AHP 분석을 활용하여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다뤄야 할 세부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차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제 개발과 주제에 따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엑스포 유치 성공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유치 경쟁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로 작용한다. 즉, ‘모든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심사여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언어, 문화 등이 차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해야 하고, 다른 엑스포에서 다루지 않은 신선한 주제여야 하며, 전시연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개최지와 적합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이태, 2019).

주제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진행한 엑스포 및 MICE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총 38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 비율이 낮은 설문지 6부는 제외하고 32부를 분석하였다. 일관성 비율은 0.1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측정지표에서 상위항목인 대주제는 환경, 인류, 기술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9년 부산광역시와 2030부산월

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개최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에서 높은 빈도로 도출된 주제 키워드와 일치한다. 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생태 파괴, 차별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시민 또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같이 실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압박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자연 파괴를 일삼아오며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 인류 공동의 이익과 평화, 지속 발전을 이바지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주제 ‘환경’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극복’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전략이 되어야 하며, 최근 몇 년 간 최고의 지구촌 과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환경보호와 자원을 재활용한 전시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인류가 기후 변화 대응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개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제 ‘기술’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는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선진국과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되었던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녹여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선보임으로써 3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부산시는 아시아 4위, 세계 9위의 국제행사 역량을 갖춘 도시답게 이번 엑스포에서도 메타버스와 최신킨기술로 관람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경쟁국과의 차별점을 두었다. 다만 두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친환경 기술 전략’에서 볼 수 있듯 박람회장 조성 시 친환경 기술과 그린에너지 등의 활용하여 조성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주제 ‘인류’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가 가장 높은 점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꾸준히 대두되어온 의제인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 배척,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체계와 글로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주제에 따른 세부 주제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인류 공동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엑스포 주제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제어 구현을 위한 전시관 설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유치와 주제관 구현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부 주제에 따른 스토리텔링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엑스포 유치 활동에 있어 밀접하게 관련해 업무를 진행하는 엑스포 및 MICE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정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실제 엑스포 개최 시 진행 과정에 투입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종사 분야별로 요인별 중요도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엑스포 개최 시 투입되는 집단 간의 이해의 차이를 의미할 뿐 객관적인 성공요인의 도출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엑스포 개최 시 투입되는 단계별·분야별 또는 민간·기관·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고재경·김동영·예민지·최민애(2020).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412, 1-25.
- 길미혜, 문유진 (2010). 메가이벤트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0(3), 85-119.
- 김봉석 (2022). 2030 부산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방안 - 2025 오사카·칸사이 엑스포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엑스포포럼자료집*, 1, 23-37.
- 김봉석, 조휘림 (2017).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무연전시연구*, 12(3), 1-27.
- 김영문, 오익근 (1996). 관광경영학에 있어서 AHP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7, 25-39.
- 김이태 (2021). 역대 등록엑스포 주제와 부산 엑스포 주제 방향. *부산발전포럼*, 187, 1-63.
- 김이태, 오성근 (2019). 월드엑스포 주제개발에 관한 연구: 2030 월드엑스포부산을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9(4), 27-42.
- 김태칠, 한진영 (2022). 전시컨벤션센터의 ESG활동이 사회적 가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일산 KINTEX를 사례로. *MICE관광연구*, 22(3), 85-102.
- 김향자 (1998). 분석적 계층과정 (AHP) 에 의한 관광정책 우선 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367-374.
- 국제신문 (2021). 엑스포 유치 성공 이래서 가능했다 <4> 중국의 치밀한 사전 전략.

- 금성근 (2019). 오사카의 월드엑스포 유치가 부산에 주는 시사점. *BDI 정책포커스*, 360, 1-12.
- 권태일 (2009).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뉴스 (2015). 밀라노 엑스포 현황리에 폐막.
- 박상규 (2021). 과학기술과 인간성. *한경에세이*, 32.
- 박영숙, Jerome Glenn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도서출판사 교보문고.
- 박재현 (2022). 대전환 시대, 인류공영의 미래가치. *부산엑스포포럼자료집*, 1, 133-143.
- 부산일보 (2022). 두바이엑스포 폐막, 182일간 110만 명 한국관 찾아.
- 산학뉴스 (2021).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어떤지 살펴보니 미국의 80% 정도.
- 송의근 (2007). 정보화 투자사업의 평가기준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16(3), 91-108.
- 심원섭, 류광훈 (2001). AHP에 의한 관광개발정책사업의 평가지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3, 135-156.
- 안남일 (2022). 위드코로나 시대의 문화관광축제 운영방안 연구. *관광레저연구*, 34(2), 135-150.
- 안혜린, 이정재 (2011).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 16, 1-46.
- 오성근 (202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전략과 과제. *부산발전포럼*, 187, 50-63.
- 오정한 (2010). 계층화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어촌관광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장군 공수마을을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엔환경계획 녹색경제보고서 (2012). 녹색경제를 맞이하며.

- 이상훈 (2022). 미래 사회로 가는 ESG 부산 엑스포. *부산엑스포포럼자료집, 1*, 2022, 39-54.
- 이준이 (2022).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제 : 부산 엑스포 주제 구현 방향에 대한 제언. *부산엑스포포럼자료집, 1*, 15-21.
- 이호영 (2006).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경제연구, 24*(3), 167-195.
- 임송수 (2015). 2015년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세계농업, 181*, 139-164.
- 외교부 (2022). UN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최초 지역사무소 개소.
- 장인우 (2021). 세계박람회 개최 동향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788*, 1-22.
- 전기신문 (2021).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미디어 데이(Media day)’서 최초 공개.
- 전승훈·이경구·이재홍·최소정 (2006).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과의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전략 방안 모색. *정책연구, 25*, 1-188.
- 최은순, 정문수 (2009). 리스본엑스포를 통해 본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도시개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3*(8), 539-548.
- 허동근·안재영·이선진·김하니 (2022). 메타버스는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MICE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91*, 545-549.
- 황기형, 박광서 (2009).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방안 연구. *정책연구, 16*(80), 1-196.
- 2012 여수세계박람회공식보고서 (2013). 여수선언과 여수 프로젝트.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공식홈페이지

<https://koreapavilion2020.kr/fairDash.do?hl=KOR>

Klenert D., Funke F., Mattauch L., & O’Callaghan B. (2020). Five lessons from COVID-19 for advanc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76(4), 751-778.

Satty, T. L. (1982). The Analytic Hierachy Process ;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3, 64-69.

Schrenk, L., & Jensen, M. (2014). Dystopia in the World of Utopia: Unsustainable realities of sustainable themed expositions. *ARCC/EAAE 2014, Beyond Architecture: New Intersections & Connections Scramble; Knowing, Structuring, Configuring, Processing, Assembling, Consuming*, 554-563.

Le Quéré, C., Jackson, R. B., Jones, M. W., Smith, A. J., Abernethy, S., Andrew, R. M., Anthony, J. D., Willis, D. R., Shan, Y., Canadell, J. G., Friedlingstein, P., Creuxzig, F., & Peters, G. P. (2020). Temporary reduction in daily global CO2 emissions during the COVID-19 forced confinement. *Nature Climate Change*, 10(7), 647-653.

Mannakkara, S., & Wilkinson, S. (2013). Build back better principles for post-disaster structural improvements. *Structural Survey*, 31(4), 314-327.

UNISDR (2017). Build Back Better : in recovery,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설문지>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에 따른 세부주제별 우선순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김영주입니다.
본 설문은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대주제(환경, 기술, 인류) 아래 다루어질 세부주제에 관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설문 내용은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모든 응답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석사과정 연구자 김영주

- I. 다음은 향후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시 대주제에 따른 세부주제별 우선순위 평가모형으로 그 아래의 표는 평가모형의 인자별 설명입니다. 아래의 설문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읽고 지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대주제에 따른 세부주제별 우선순위 평가모형>



※. 평가항목별 상세 설명

상위 항목	하위 항목	설 명
환경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 방안	• 환경오염, 생태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의 지구적 위기와 극복 방안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활용방안 등 그린에너지
	팬데믹(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등)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 멸종위기 동식물과의 공생 방안
	민간, 공기관 별 ESG 경영	• 민간, 공공기관, 정부간 ESG 경영 전략과 현황
기술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과 산업 고도화
	친환경 기술 전략	• 녹색 에너지, 수소, 전기차 등의 기술 활용 방안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직 해결방안	•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실직의 해결방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완화와 상생 방안
인류	공평한 양질의 교육	• 국가·계층간 지식의 양극화 해소,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 인종차별, 성평등을 위한 해결방안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 산업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문학적 교양 증대 방안
	지역균형발전 방안	• 수도권 중심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1. 귀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개최 시, 어떤 대주제가 가장 우선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메뉴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평가항목	극히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중요	약간중요	매우중요	극히중요	평가항목
환경	9	8	7	6	5	4	3	2	기술
환경	9	8	7	6	5	4	3	2	인류
기술	9	8	7	6	5	4	3	2	인류

2. 귀하는 대 주제별 세부 주제에 있어 어떠한 계획들이 가장 우선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대주제 ‘환경’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조사

평가항목	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극 히 중 요	평가항목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기후변화와 재연재해 극복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공기관의 ESG 경영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그린에너지 활용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공기관의 ESG 경영
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민간, 공기관의 ESG 경영
Pandemic에 따른 환경문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 공기관의 ESG 경영
동식물의 멸종과 해결방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기관의 ESG 경영

2-2. 대주제 ‘기술’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조사

평가항목	극 히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극 히 중 요		평가항목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친환경 기술 전략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가간 기술의 빈부격차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과 실질	

2-3. 대주제 ‘인류’의 세부 주제별 우선순위 조사

평가항목	극		매		중		약		등	약		중		매		극		평가항목
	히	중	우	중	요	간	중	간		중	요	우	중	요	히	중	요	
공평한 양질의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공평한 양질의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평한 양질의 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지역균형발전 방안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종과 성별의 불평등 해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간성 및 인문학적 교양 증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지역균형발전 방안

3. 귀하가 생각하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에서 다뤄야 될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
()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5.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6.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7. 귀하의 근무 직종은?

① 관련 업계 종사 ② 공무원/공공기관 ③ 교직원/연구기관 ④ 기타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